

행자부 “광주시 노조 정부차원 대응” 파장

“총투표는 불법 행위... 결과 상관없이 원천무효”

노조 권리·사무실 등 편의제공 중단도 시사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시기 조율 신청서 제출”

행정자치부가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가결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또 “합법노조에 보장받은 권리와 법적 보호, 노조사무실 제공 등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 활동이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무효”라며 “총투표 가결 공표는 광주시 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단체

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투표와 관련, “시 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광주시 노조가 공고한 총투표 기간(3월9~11일)을 투표기간에 연장(3월21~4월8일) 시행하고, 투표방법도 현장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행자부는 전공노 가입투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합법 노조’로만 활동할 수 있다. 전공노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합법단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대응방향을 내비쳤다.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도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돼 있는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대한 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도 조만간 전공노에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에서 전공노 가입시기 등을 조율해 가입 신청서

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노조는 지난 8일 성과급 퇴출제 등 신분보장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처우결정 등에 제동을 거는 힘을 키우기 위해 전공노 가입을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 이를 가결했다. 전공노는 중앙 집중, 단일 집행체계를 갖춘 전국 단일노조로 19개 본부와 212개 지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앙 부처와 외청, 각급 법원,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이 지부 단위로 활동 중이다. 최근 들어 광주에서는 2014년 11월 남구청 노조가 가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시교육청 노조가 가입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박진현 부국장 ‘최은희여기자상’

호남권 언론 최초 영예

본보 박진현(52)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 선임기자가 제33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은 1000만원.

최은희 여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호미)는 11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희여기자상 수상자로 광주일보 박진현 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선임기자의 이번 수상은 호남지역 최초의 수상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7년 광주일보 수습공채로 입사한 박 부국장은 광주·전남 최초의 문화 선임기자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 문화 이슈를 다룬 칼럼 ‘박진현의 문화카페’를 연재해 오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기관들과 문화행정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전진미술관에서 배운다’,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등 기획시



리즈를 연재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14년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시리즈로 광주·전남 기자회견 ‘올해의 기자상’(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처음 만나는 미국미술관’, ‘도시의 아이콘 아트센터’가 있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및 동대학원 출신으로 지난 2002년~2003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최은희여기자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추계(秋溪) 최은희(1904~1984) 여사가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1984년 제정된 언론상이다. 매년 1명의 여기자를 선정,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호남고속철 나주역사 설계

‘천년의 터’ 당선작 선정

내년 상반기 착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따라 시행한 나주역사 설계공모 결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 28일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3월 31일 작품을 접수했으며, 외부전문위원 9인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했다. 공단은 공모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나주역사 설계를 마칠 예정이며, 같은 해 상반기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용객 접근편리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당선작은 나주사의 역사적 흐름을 나옴으로 향상한 점이 돋보이며, 2천년 고도와 혁신도시의 조화로운 만남을 잘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호남고속철도 나주역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작품을 선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SRT 개통 대비 송정역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 매일 현장 근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광주시가 수서발 고속열차(SRT) 개통에 맞춰 송정역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SRT가 개통되면 송정역 일일 평균 이용객이 현재 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유관기관, 자치구 관련 부서 담당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한차례 이상 현장근무로 교통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자치구, 택시조합과 함께 택시승강장 주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고 택시업계 자정 노력을 위한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역사 뒤쪽에 220면 규모의 주차장을 8월까지 조성하기로 해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으면 버스 장차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상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송정역 뒤 신덕 지하차도와 송정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 개설, 송정역·평동·선운지구를 연결하는 평동산단-장곡교 확충, 신덕마을-중보교 제방도로 확충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섬 가꾸기 고도화 계획’ 수립

4대 전략 11대 핵심과제 92개 중장단기별 추진

전남도가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섬 가꾸기 고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제는 예산, 기간 등을 감안해 중장단기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전남도의 브랜드 시책은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전남의 섬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주민과 방문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섬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개의 섬을 일률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여건에 맞춰 입체적·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각 실과 별로 사업

을 발굴한 뒤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대 전략 11대 핵심과제 9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추진과제 중 신규 과제는 33개, 기존 과제는 59개다.

우선 4대 전략은 ▲편안한 섬 주민 ▲쾌적한 섬 환경 ▲소드높은 섬 생활 ▲매력 있는 섬 여행 등으로, 통신·안전망 서비스 확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주민 정주여건 개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보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깨끗한 섬 만들기, 섬 특산물 경쟁력 강화,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사회경제, 편안한 섬여행 환경 조성, 섬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섬·해양 레저 활성화 등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섬 고도화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단위사업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섬 주민이나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문예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 15일 새출발

전남문화예술재단이 15일 전남 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을 개편해 출발한다. 전남도문화관광재단(관광재단)은 이날 무안군 후광대로에 있는 전남개발빌딩에서 출범식을 연다.

관광재단은 기존 문화예술 진흥·예술단체 지원사업과 함께 새롭게 관광분야 업무를 전담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MICE 관광, 크루즈 여행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 업무 등이다. 관광마케팅팀과

지역특화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중앙공사추진 추진을 위한 관광연구개발팀이 신설됐다.

관광재단 조직은 1처, 6팀, 1소로 꾸려지며, 정원은 현재 27명에서 35명으로 8명 증원된다. 신규직원들은 다음달 중순까지 채용을 마친다.

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맡고, 그 업무는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윤영기자 penfoot@

당신의 광장/즐거움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건물 임대

- 1층 246.27㎡ (74py)
- 2층 269.42㎡ (82py)
- 원도심 중심 상권 위치(목포역 근처)
-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최적
- 임대가 상담후 결정
- 즉시 입주 가능

구)보해상호저축은행

연락처 010-9962-9003, 010-9868-5151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 모집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자되실 분, 투자하실 분, 부동산중개업 오르실 분, 경매 컨설팅 하실 분, 기타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 과목: 실전경매, NPL, 토지, 상가, 공장, 특수물건, 금융, 도시계획, 명도, 기타 (월~금, 요일별로 과목이 다름, 요일별 수강 가능, 상담요함)
- 과정: 각 과목당 1개월 완성
- 개강: 매일 초 (수시접수, 전학수 30명 마감)
- 시간:

오전반	10:00~11:50
오후반	17:00~19:00
- 특전: 이해될 때까지 반복수강 가능, 명사강사진 수강료 할인 등 기타.

강사 초빙

경험과 재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십니다. 교수들의 문의를 고대합니다.

모집 공고

- 부동산금융대출분야 (특수물건대출, NPL담보대출, 미준공건물담보대출, 배당채권담보대출, 신탁부동산대출 등)
- 상가분석분야 (상가개발, 분양, 투자, 입지분석 등)
- 토지개발실전문분야 (토지개발행위분석, 토지행위법규분석, 지목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개설, 건축관련법규분석, 특수토지의 활용방안분석, 재개발, 재건축등)

부동산 재테크 종합학원

한국토지경매학원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주) 4층

☎ 062-229-1512